

目的의식과 教育실천

물에 빠진 한 사람이 물 한가운데서 방향감도 없이 허둥대며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떤 사람은 좀 느리더라도 어느 한 방향을 정하여 헤엄을 쳐나가고 있다. 방향 없이 열심히 헤엄치는 사람과 느리더라도 한 방향을 잡아 꾸준히 헤엄쳐 나가는 사람 중 누가 더 살아남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왜 하느냐 하는 根本的 문제는 생각지 않은 채 하루 종일 바쁘게 일을 하고는 열심히 많은 일을 했다고 자위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비록 앞의 사람처럼 열심히 하지는 않더라도 근본적인 目的意識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다. 전자와 후자 중 조직 발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한가?

물론 方向感과 目的意識을 갖는 동시에 일도 열심히 하여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서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 비록 덜 열심히 일하더라도 일의 목적과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이에 접근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目的이 우선이고 이 목적에 맞는 手段을 결정해야 하는 일은 다음의 문제이다. 빨리 열심히 일하는 수단을 택하더라도 目的과 方向에서 빗나가면 빠름과 열심이라는 수단은 無意味하게 된다. 화살이 활 시위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과녁 근처에 가서는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지게 되듯이 출발점에서의 目的意識은 매우 중요하다.

教育行政에서도 행정기술과 방법이 중요하고 필요하긴 하지만 행정의 목적과 방향, 가치를 다루는 行政哲學은 더욱더 그러하다. 그런데 행정수단과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교적 많이 발전하였는데 행정 목적과 가치, 철학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관심도 적었고 발전도 하지 못했다.

教育實踐에서도 많은 내용을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관과 인간관을 갖고 어떤 人間像을 지향하여 가르치느냐가 더 중요하다. 교육은 결국 사람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大學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만 하면 되지 大學 目標이 뭐 그리 중요하고 필요하냐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大學人에게 목적의식과 방향감, 대학교육 목표가 교육과 행정의 실천에 앞서 더 중요하다고 본다. 자기 행동의 목표와 이유가 명확하고 분명할 때 또 목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 목표에 심각한 의미 부여를 할 때, 실천도 잘 할 수 있고 실



忠南大 總長 鄭 德 基

천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기꺼이 참아내고 오히려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일하는 사람이 일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면 목표달성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일반 대학의 목적은 敎育法 제108조에 제시되어 있다.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 진술을 나누어 보면 학술의 심오한 理論과 광범하고 정치한 應用方法을 교수·연구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의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우리는 여기서 大學의 目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이 고유의 독특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위에서 말한 일반 목적을 거의 복사하다시피 비슷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유하고 독특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대학이 百貨店式 綜合大學化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첫째와 관련되지만 모든 대학이 學問研究 指向的이고, 指導者를 길러낸다고 하는 점이다. 대학들 중에는 職業指向的 대학도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소수 정예화의 시대를 넘어 대중화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못하는 판에 무슨 지도자 운운이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자기 대학의 목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目的과 目標의 不明瞭性에 문제가 있다. 각 대학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므로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목표는 더욱 희미할 수밖에 없다. 그 학과 안에서 개설되는 과목의 목표, 한 시간 한 시간의 수업목표는 대학교육의 목적과 목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일의 목표가 없으니 일의 결과와 성과에 대하여도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 대학이 자기 스스로를 評價하는 일도 거의 없다. 그저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대학에 관한 평가의 주요 기준도 각 대학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敎育課程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人的 物的 資源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목적의식을 갖고 교육실천을 할 때 효과도 있고 일하는 보람과 재미도 있다. 의미있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大學敎育이다. ■